



NEWS LETTER

2021년 1월 4일 Vol. 395

재활의학과 권범선 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재활의학과 권범선 교수가 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한 공으로 2020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권범선 교수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재활의학회 보험이사를 역임하고, 이후에도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각종 위원회 활동을 펼치며 건강보험 제도개선에 앞장서 왔다.

특히 권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지의 시론 ‘재활의료 공급체계와 전달시스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동향의 ‘재활의료기관 임상 질 평가 방안’에서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방향으로 ‘임상 질 평가의 중요성과 활용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권 교수는 지난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안전관리와 국민건강에 증진한 공로로 표창장을 수상한데 이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까지 수상함으로써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국민건강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음을 입증했다.

권범선 교수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환자 중심의 맞춤형 진료를 통한 의료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임상현장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월서스님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1억 원 기탁 “한 생명이라도 살리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본사 조실이자 국제구호단체인 ‘천호월서희망재단’ 이사장인 월서 큰스님이 2020년 12월28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1억 원을 기탁했다.

월서 큰스님은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지만 동시에 생명의 소중함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고 있다”며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다”고 기부 뜻을 밝혔다.

월서 큰스님은 2012년부터 미얀마, 캄보디아, 네팔, 라오스 등 동남아 불교국가에 학교건립, 장학금 지원 등의 교육사업 지원하면서 한국 불교의 위상을 높여왔다.

경허, 만공, 보월, 금오 선사로 이어지는 법맥을 이어받은 월서 큰스님은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원로의원 등을 역임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마스크 5천장 후원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지난 12월 24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캠페인으로 마스크 5천장을 기부했다.

이날 전달된 마스크는 (주)대륙공업과 (주)에이스바이오테크에서 후원받은 마스크 일부를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환자와 의료진을 위해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이해원 병원장 등 최소 인원이 참석했다.

이해원 병원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의료기관에 마스크를 기부해줘 감사하다”며 “마스크가 꼭 필요한 환자들과 의료진, 종사자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동원글로벌 고정필 대표 불자상 수상 상금 기부

물티슈 제조업체인 (주)동원글로벌의 고정필 대표가 참여불교재가연대로부터 재가불자상으로 수상한 상금 50만 원을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기부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대불련) 출신인 고 대표는 그동안 대구와 불교계에 물티슈를 기부해오는 등 코로나 극복에 앞장서 왔다.

고정필 대표는 “불자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코로나를 극복하기를 기도한다”며 “작은 상금이지만 불자로서 마땅히 코로나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부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